

# 국내 벤처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비교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for Domestic Ventures

이상천(Sang Cheon Lee)\*, 배성문(Sung Moon Bae)\*\*, 고봉상(Bong Sang Go)\*\*\*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합된 연구 틀 안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창업자/팀, 조직/자원, 전략/창업과정, 산업 환경, 지원시스템을 경영성과 영향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영역별 측정변수를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벤처 경영성과 통합 모형을 구축하고, 우수벤처와 열등벤처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기업의 경우 창업자 자신의 산업전문능력과 시장규모의 확대가 경영성과에 더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열등기업의 경우 자원조달능력 및 경영 전략 역량이 민감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기업과 열등기업을 나누는 핵심요인은 창업자의 능력 및 정부정책의 일치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표본수의 부족, 측정 척도의 미비 등 실증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통합된 연구 틀 안에서 우수 벤처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in the view of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and to investigate key determinants of superior and inferior ventures.

We propose the integrated new ventures performance model which is composed of entrepreneur, organization/resources, industrial environment, strategy/foundation process and availability of supporting systems as corresponding variables to new ventures performance.

The superior venture performance is affected mainly by entrepreneur's managerial ability and industry expertise, but the inferior by resources and management strategy.

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 of small sample, limited questionnaire and performance measure, it has contribution of identifying key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with the integrated frame of study.

**키워드** : 벤처기업, 실증연구, 경영성과모형, 경영성과 영향요인

Venture Business, Empirical Study, Business Performance Model, Performance Determinants

\* 책임저자,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부 공학연구원, 부교수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부 공학연구원, 조교수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2008년 10월 02일 접수,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 후 2008년 11월 07일 게재확정.

## 1. 서 론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인 신기술과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기술을 비롯한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계의 신 영역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기업(Venture)의 용어는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출현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는데, 초기 학자들은 급속한 기술혁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의 높은 신장, 그리고 산업의 지식 집약화의 촉진에 따라서 출현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신업체의 개발 등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무기로 하여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기업화를 위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사업을 기업가 정신을 지닌 모험기업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중소기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부르고 있다[1].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중심의 성장구도의 한계극복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생계형 창업에서 기업형 창업으로의 창업활력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코스닥 시장 및 벤처캐피탈의 재무적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부진은 벤

처의 고유사업에서의 수익창출 실패, 여유자금조달 활용을 위한 업종다각화 및 수익성 없는 투자의 무리한 전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주가폭락에 따른 투자자 신뢰저하, 그리고 정부의 전시위주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벤처지원 정책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기업가, 개인, 창업자에 관한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20]. 그러나 이후 벤처기업의 설립 및 성장과정에서의 창업자이외의 요인들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고[17], 경영전략차원에서의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16]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많은 창업분야, 전략경영분야, 중소기업 연구 분야의 학자들이 벤처기업의 설립과정 및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이 벤처기업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부족했고 이점은 벤처기업 성과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벤처기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우수벤처와 열등벤처로 분류한 다음 각 집단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핵심성공요인을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결정요인의 실증 연구[2]의 후속 연구로 우수벤처의 핵심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과정 및 운영, 벤처 지원 정책의 결정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모형

벤처기업의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는 외국 연구자들의 창업모형을 그 원류로 들 수 있다. 창업모형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1990년 이후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벤처기업의 성과 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기업의 창업모형에 대한 연구는 Gartner[20]가 1985년도 개인, 조직, 환경, 과정의 4가지 차원을 개념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사실상 통합된 개념 모형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Covin and Slevin[19], Cooper[18]가 전략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성과와 연결시킴으로써,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Gartner는 기업의 창설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틀의 일차적인 가치는 다양한 벤처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벤처의 변동과 복잡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벤처창업을 신 모험사업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개인/인물, 조직, 환경, 벤처과정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Covin and Slevin[19]은 전략경영의 개념을 경영성과 결정모형에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경영성과를 연결시킴으로써 개념적인 경영성과 모형을 제시했다. 위험감수, 혁신성, 선행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적 자세(Entrepreneurial Posture)를 중심으로 외부변인, 전략변인, 내부변인 및 경영성과의 다

섯 가지 요인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Shane and Venkataraman[21]은 벤처기업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받아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기회가 발견되고, 평가되고, 활용되는지를 학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독립적인 학문적 이론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Baum 외[16]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던 이론적인 체계적 실증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실증연구모형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307개 건축용 목공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략경영이론, 조직행위론, 조직이론, 창업 모형 등을 참고한 다섯 개 연구분야의 17가지 개념을 추출하여 벤처성장의 통합모형을 만들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연구결과 벤처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최고경영자의 특수역량과 동기부여, 기업의 경쟁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자의 기업가 특성과 일반적 역량 및 환경은 간접효과요인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는 개념 모형의 제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론적인 틀의 구축을 위해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벤처기업의 성과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00년 이후 수행되었는데, 개념 모형의 설계와 실증 분석을 통한 이론 모형의 검증을 다루는 연구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김인호[4]는 기업성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업과위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동태환경(Dynamic Environment)하에서의 기업성과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

다. 기업성과를 기업파워(FP : Firm Power)와 산업파워의 함수로 정의하고, 기말의 기업파워는 기초의 기업역량(FC : Firm Competence)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해당기간동안 수행한 전략적 행위변수(SBV : Strategic Behavior Variables)를 원인행위로 하여 행한 결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인찬 외[10]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총자산제곱을 성과변수로 하고 32개의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수립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기술권리의 수 등 6개의 주요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정수[11]는 마케팅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안연식[5]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향요인과 성과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성과요인은 비즈니스(사업)와 기술로 정의하고 고객성과, 재무성과, 내부 프로세스성과, 학습혁신성과 등 4가지 성과변수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오현목 외[6]는 신기술 기반 정보통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경영전략 수립 시 기술개발 측면에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동주[9]는 영향요인중 시장지향성과 기술혁신지향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성장단계, 전략유형, 산업유형에 따른 성과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채명수 외[14]는 창업자 특성, 기업의 기술능력, 외부환경 및 공격적 경쟁전략을 직접, 간접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단순히 창업자의 특성, 외부환경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쟁전략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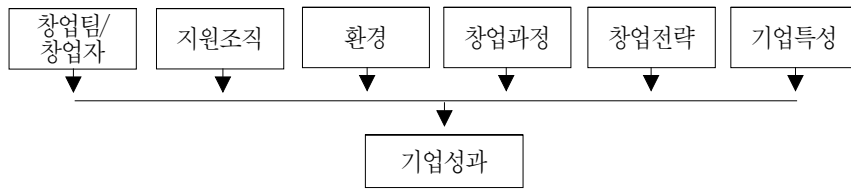
총 370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기술능력, 경쟁정도와 공격적 경쟁전략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창업자특성(경영능력, 성취의지)과 시장성장정도가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철[8]은 시장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경쟁력이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장수덕, 이장우[12]는 IMF 구제금융과 같은 환경적 충격 하에서의 벤처기업의 성과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전략, 조직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조적 특성이 IMF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적 충격을 전후하여 어떻게 기업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4개 유형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창업자의 지식축적활동, 네트워킹 및 신뢰성, 마케팅전략의 차별화 및 외부자원 활용전략, 환경적 변화(특히 기술 변화)와 조직특성(특히 계층화)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세중[7]은 기존의 벤처 창업모형의 영영성과 결정 요인을 정리하여 창업팀/창업자, 지원조직, 환경, 창업과정, 창업전략, 기업특성, 기업성과 등으로 구성된 개념모형으로서의 <그림 1>과 같은 통합적 창업모형을 제시하고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림 1〉 통합적 창업모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분류 결과를 정리하면 주로 국외 연구자의 경우 개념적 모형의 제시에 그치고 있어 모형에 대한 실증 검증이 요구되며, 국내 연구자의 경우 많은 실증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모형들은 영향요인의 관점에서 몇 개의 요인에 한정하여 분석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영성과의 통합모형에 대한 실증 연구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세중[7]의 통합창업모형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의 통합모형에 대한 이론모형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벤처와 열등벤처의 성과 영향 요인을 비교 검증한다.

### 3. 변수의 정의와 실증자료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실증자료의 구축을 위해 연구모형과 관련된 6개영역과 표본 특성과 관련된 일반사항 1개영역 등 총 7개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역별 측정변수는 선행연구의 변수항목을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영역별 설문항목의 척도는 일반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항목에 대해서 리커

드 7점 스케일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창업과정 및 지원시스템 활용여부는 2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는 국내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1995년 이후 설립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증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답자는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임원급 이상으로 하였다. 설문방법은 e-mail과 web site를 이용한 on-line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여 설문에 응하겠다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e-mail을 발송하였다. 2003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회신된 설문 수는 112개이었으나, 설문내용이 부실한 기업 2개를 제외하고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년도, 종업원 수, 사업업종별 표본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 4. 측정변수의 통합

벤처 경영성과에 영향요인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영역별 측정 변수의 통합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의 계량 측정 항목 중 다 개념 측정영역인 창업자

〈표 1〉 측정변수의 설계

영역	측정 항목	세부 측정 내용
1. 창업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적 자세/지향</li> <li>◦ 성취욕</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 결정 등의 위험 감수</li> <li>2. 경쟁자와의 적극적인 경쟁</li> <li>3. 독립성</li> <li>4. 결과 지향적 자세</li> <li>5. 책임 소재 명확화</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역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조직 능력</li> <li>7. 기회 포착 능력</li> <li>8. 산업 능력 : 산업 전문가</li> <li>9. 기술 능력 : 기술능력보유자</li> <li>10. 경영관리 능력</li> <li>11. 마케팅 능력</li> </ol>
2. 조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직원 역량</li> <li>2. 영업 인력</li> <li>3. 기술 인력</li> <li>4. 비전/목표 의식 공유</li> <li>5. 의사결정</li> <li>6. 마케팅 지향성</li> <li>7. 헌신적 노력</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생산 시설/설비</li> <li>9. 자금 조달</li> <li>10. 기술/마케팅 역량</li> <li>11. 지적재산권 : 기술 특허</li> <li>12. KSF의 보유 여부</li> </ol>
3. 전략/창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전략</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전/미래상 보유</li> <li>2. 기술 전략 보유</li> <li>3. 진입 전략 보유</li> <li>4. 경쟁 전략 보유</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역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부가가치의 크기</li> <li>6. 고객니즈에 부합</li> <li>7. 혁신 제품 여부</li> <li>8. 성장 잠재력</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과정수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조사분석</li> <li>2. 장기전략/사업계획</li> <li>3. 신제품시장테스트</li> <li>4. 벤처기업인증</li> </ol>
4. 산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환경</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내 경쟁 상황</li> <li>2. 기술 변화 정도</li> <li>3. 시장 규모 확대</li> <li>4. 정부 정책 일치성</li> </ol>
5. 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시스템 활용</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컨설팅</li> <li>2. 창업지원센터</li> <li>3. 벤처캐피탈</li> <li>4. 엔젤자금</li> <li>5. 정부지원금</li> </ol>
6. 경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성과</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답자(임원진) 평가</li> </ol>

〈표 2〉 표본의 구성

구 분	내 용	업체수	비 율(%)
창업년도	1998년 이전	34	30.9
	1998~2000	52	47.3
	2001이후	24	21.8
종업원수	20명 미만	44	40.0
	20명~49명	36	32.7
	50명~99명	21	19.1
	100명 이상	9	8.2
사업분야	전기전자	10	9.1
	정보통신/SW	68	61.8
	기계금속	5	4.5
	의료생명	9	8.2
	기 타	18	16.4
합 계		110	100%

/팀, 조직/자원, 전략/창업과정 영역의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의 상호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다[13]. 추출 요인수는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 응답결과의 신뢰도는 각 요인에 소속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크론바하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 신뢰성은 선행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5내지 0.6 이상일 경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15]. 창업자/팀의 능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과정중 독립적성향, 결과중시성향 측정항목은 다른 측정항목과 반대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크론바하  $\alpha$  계수가 0.5미만으로 낮은 응답신뢰도를 보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고유값이 1을 초과하는 요인은 총 3개가 도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은 전체

〈표 3〉 창업자/팀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항목	평균 (순 위)	성 분		
		요인 1 (경영관리 능력)	요인 2 (산업전문 능력)	요인 3 (위험대처 능력)
경영관리능력	4.82(7)	<b>.818</b>	.152	.026
마케팅능력	4.47(8)	<b>.741</b>	.108	-.074
책임소재명확화	5.29(1)	<b>.693</b>	-.009	.240
조직장악능력	5.26(3)	<b>.630</b>	.531	.024
산업전문가능력	5.28(2)	.202	<b>.858</b>	.177
기술보유자능력	5.07(5)	.133	<b>.827</b>	.169
기회포착능력	5.22(4)	.397	<b>.750</b>	-.011
위험감수성향	4.11(9)	-.154	.205	<b>.815</b>
경쟁선호성향	5.09(6)	.305	.053	<b>.758</b>
아이겐 값		2.426	2.345	1.363
설명분산(%)		26.960	26.050	15.143
누적설명분산(%)		26.960	53.010	68.153
크론바하 $\alpha$		0.7529	0.7941	0.5037

분산의 68%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요인에 소속된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치도 0.6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개념 타당성의 관점에 있어서 무리가 없어 보이며, 크론바하  $\alpha$  계수 또한 0.5이상으로 신뢰성 관점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창업자/팀과 관련하여 최대 성분 적재치를 갖는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경영관리 능력, 산업전문 능력, 위험대처 능력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다음 조직/자원 영역중 조직영역의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각각 <표 4>와 같다. 조직영역의 측정항목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일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각 항목의 요인 적재치는 0.6이상이며 및 크론바하  $\alpha$  계수는 0.8이상으로 개념타당성 및 신뢰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직영역에서 도출된 요인은 임직원능력으로 명명한다.

<표 4> 조직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항목	평균(순위)	요 인
		임직원능력
사업수행능력	5.15(4)	.818
마케팅지향자세	5.03(5)	.764
마케팅활동수행도	4.39(7)	.763
기술개발활동수행도	4.83(6)	.750
조직목표달성헌신도	5.57(2)	.745
비전/목표이해도	5.20(3)	.730
의사결정신속성	5.68(1)	.683
아이겐 값		3.953
설명분산(%)		56.471
누적설명분산(%)		56.471
크론바하 $\alpha$		0.8687

다음 자원 역량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치 및 신뢰성의 관점에서 타당한 두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은 각각 자원조달능력 및 기술확보능력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표 5> 자원역량 요인분석

측정항목	평균(순위)	요 인	
		자원조달능력	기술확보능력
자금조달원활정도	4.17(5)	<b>.875</b>	.053
생산시설/설비보유도	4.33(4)	<b>.778</b>	.033
기술마케팅능력	4.79(2)	<b>.653</b>	.526
성공요인보유도	5.16(1)	.162	<b>.849</b>
지적재산권보유도	4.58(3)	-.006	<b>.830</b>
아이겐 값		1.825	1.690
설명분산(%)		36.501	33.794
누적설명분산(%)		36.501	70.295
크론바하 $\alpha$		0.7034	0.6331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 환경의 인식 정도는 <표 6>과 같다. 표본 기업은 산업 내 경쟁정도 및 기술변화 속도 등의 측정항목을 부정적 환경요소를 시장 규모 확대 및 정부정책 강화 등 긍정적 환경요소에 비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은 산업 환경 중 시장 규모 확대 및 정부정책 일치성과 같은 기회요소(opportunity) 보다는 경쟁정도, 기술 변화 속도 등 위협요소(threat)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환경변수는 각 설문항목이 독립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개별 측정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6> 산업 환경 변수

측정항목	평균(순위)	표준편차
경쟁정도	5.7706(1)	1.2370
기술변화속도	5.2593(2)	1.3629
시장규모	4.0183(3)	1.5985
정부정책일치성	3.7982(4)	1.4831

경영전략 및 사업아이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전략 및 사업아이템은 단일 요인으로 통합되었으며 각각을 경영전략역량, 제품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창업과정수행도 변수는 시장분석/조사, 장기전략/사업계획 수립, 신제품의 시장테스트, 벤처기업인증 등 일반적인 창업절차의 4가지 활동 중 실제 수행한 활동수로 정의한다. 창업과정수행도 변수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국내 벤처기업은 창업과정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2개 미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과정 중 장기전략/사업계획 과정의 수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제품시장 테스트 과정의 수행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은 외부지원 시스템 중 정부 지원금,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자금 지원 시스템의 활용도가 창업지원센터, 경영컨설팅 등 간접지원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시스템 활용도 변수는 5가지 외부지원 항목 중 실제적으로 기업이 수혜를 입은 지원수로 정의하였다. 국내 벤처기업은 평균 1개 정도의 외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략/사업아이템의 요인분석

측정항목	평균(순위)	요 인	측정항목	평균(순위)	요 인
		경영전략역량			제품역량
시장진입전략	5.21(2)	<b>.884</b>	성장잠재력	4.93(3)	<b>.897</b>
기술전략	5.14(4)	<b>.874</b>	부가가치	4.97(2)	<b>.874</b>
비전/미래상	5.50(1)	<b>.874</b>	혁신성	4.47(4)	<b>.872</b>
경쟁전략	5.15(3)	<b>.825</b>	고객니즈	5.29(1)	<b>.743</b>
아이겐 값		2.990	아이겐 값		2.881
설명 분산(%)		74.739	설명 분산(%)		72.027
크론바하 α		0.8872	크론바하 α		0.8693

〈표 8〉 창업과정수행도/지원시스템활용도 통계량

측정항목	수행도(%)	측정항목	활용도(%)
시장분석/조사	66(60.0%)	경영컨설팅	21(19.1%)
<b>장기전략/사업계획</b>	<b>74(67.3%)</b>	창업지원센터	14(12.7%)
신제품 시장 테스트	28(25.5%)	벤처캐피탈	28(25.5%)
벤처기업 인증	39(35.5%)	엔젤투자자	35(31.8%)
		<b>정부지원금</b>	<b>44(40%)</b>
창업과정수행도	1.8818	지원시스템활용도	1.1209

### 5. 우수벤처와 열등 벤처의 핵심 영향요인

본 장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중 핵심성공요인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즉 성과의 관점에서 우수한 벤처와 그렇지 못한 벤처를 규명 할 수 있는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또 성과가 우수한 벤처와 그렇지 못한 벤처에 있어서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은 각각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분석결과는 성공한 벤처를 대상으로 한 핵심성공요인의 규명에 그 의미가 있다. 벤처기업의 성과는 임원진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성과를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매출, 순이익 등 계량적 성과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계량적 성과항목의 평가가

어려우며,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성과지표로 임원진이 평가하는 자체 성과항목을 사용하고 있다[8].

분석방법은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우수기업(경영성과  $\geq 5$ ), 보통기업(경영성과 = 4), 열등기업(경영성과  $\leq 3$ )으로 구분하고, 구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역별 통합변수를 대상으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2개 이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섞여 있을 때 개개의 케이스(case)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모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판별함수를 만들어서 판별작업을 실시하는 분석방법이다[3]. 판별함수의 작성 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수선택기능에 의해 판별효과가 높은 변수를 골라낼 수 있으며 선택

〈표 9〉 성과군의 판별분석

판별변수	Fisher의 판별함수 계수			Wilks 람다	유의확률
	열등기업 (n = 35) (성과 $\leq 3$ )	보통기업 (n = 34) (성과 = 4)	우수기업 (n = 41) (성과 $\geq 5$ )		
경영관리능력	-.499	.151	.465	0.914	0.037
산업전문능력	-.721	.191	.241		
정부정책일치성	1.865	1.591	2.079		
(상수)	-4.927	-3.805	-5.809		

된 판별변수는 벤처의 성공여부를 구분하는 핵심성공요인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성과군에 대한 판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에서 판별변수의 선택기준은 Wilks 람다의 F-확률(진입 : 0.05, 제거 : 0.10)을 사용하였다. 판별함수는 유의확률 0.037의 수준으로 유의하며, 판별 성공율은 44.9%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판별변수로 창업자/팀 영역의 경영관리능력과 산업전문능력이 선택되었으며 산업환경영역의 정부정책일치성이 선정되었다. 즉 창업자/팀의 능력과 정부정책일치성을 벤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성공요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즉 우수벤처는 열등벤처에 비해 창업자/팀의 경영관리

능력, 산업전문 능력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환경변수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주로 창업자의 능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여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우수벤처와 열등벤처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위하여 전체기업, 우수기업군, 열등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영역별 영향요인 변수로 선정하고 종속 변수는 경영성과로 정의하였다. <표 10>에서 각 셀의 값은 표준

<표 10>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영역	요인	표준회귀계수, * : p < 0.1, ** : p < 0.05, *** : p < 0.01		
		전체기업	우수기업	열등기업
창업자/팀	경영관리능력	.356**	-	-
	산업전문능력	.601***	0.101**	-
	위험대처능력	-	-	-
조직/자원	임직원능력	-	-0.138**	-
	자원조달능력	-	-	0.243***
	기술확보능력	-	-	-
전략/창업과정	경영전략역량	-	-	0.310***
	제품역량	-.542**	-0.086*	-0.271***
	창업과정수행	.354**	0.367***	0.298**
환경	시장규모	.356***	0.416***	-
	정부정책일치성	.393***	0.221*	0.794***
지원시스템	지원시스템활용	.261**	0.133**	0.165**
모형적합도	R <sup>2</sup>	0.918	0.969	0.960
	수정 R <sup>2</sup>	0.910	0.960	0.943
	F	110.890	103.457	59.358
	p	0.000	0.000	0.000

화 회귀계수와 유의 수준으로 나타낸다.

먼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창업자/팀 영역에서는 경영관리 영역, 산업전문능력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자원영역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업자의 역량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국내 벤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전략/창업과정 영역의 체계적 창업과정의 수행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평가 되었으나, 제품역량은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제품역량은 장기적으로는 사업성장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분석 결과는 아이템 선정 후 실행에 있어서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이거나, 기업의 성과가 사업아이템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산업 환경영역의 시장규모, 정부 정책일치성 및 벤처기업의 지원시스템 활용 정도 또한 경영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우수기업과 열등기업에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경영관리 능력, 산업전문능력 등 창업자/팀 능력은 우수기업에서 주요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열등기업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창업자의 능력이 벤처의 핵심성공요인으로 평가되는 판별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조직/자원영역의 임직원 능력은 우수기업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우수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주로 창업자주도로 이루어져 임직원능력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조직/자원영역의 자원조달능력, 전략/창업과정 영역의 확고한 경영전략은 열등기업에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창업과정의 수행은 우수기업, 열등 기업모두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역량의 부정적 영향도는 우수기업에 비해 열등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변수에 있어서 시장규모의 확대의 기회요소는 우수기업에서 더 잘 활용되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열등기업은 정부 정책 일치성 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시스템 활용은 우수기업, 열등기업 모두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 6. 결 론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제침체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합된 연구 틀 안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과 열등한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사이의 영향 요인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수벤처의 핵심 성공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자/팀, 조직/자원, 전략/창업과정, 산업환경, 지원시스템을 영향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벤처기업의 핵심성공요인을 평가하기 위

해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나눈 기업군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별변수로 창업자/팀 영역의 경영관리능력과 산업전문능력 그리고 환경요인 중 정부정책일치성이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은 들은 주로 창업자의 능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적이었다는 국내 벤처기업의 환경적 요소에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우수기업과 열등기업의 성과결정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우수기업의 경우 창업자 자신의 산업전문능력과 적절한 시장규모가 주요 영향 요인인 반면 열등기업의 경우 자원조달능력 및 경영 전략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우수기업의 경우 경영성과는 창업자의 능력 및 시장 규모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열등벤처의 경우 자원조달능력 및 정부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우수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열등기업의 경우 자금, 기술, 마케팅 등 핵심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더 의존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성공한 벤처기업은 창업자 전문능력을 기반으로 체계적 창업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시장규모 및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 하고, 외부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전략과 경영성과와의 관계구명이 주요 연구 주제 중 일부였으나 전략과 경영성과 사이의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도 전략 유형(특히 경쟁전략 및 기술전략)이 경영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이지만 전략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의미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결과가 요구되며 이 부분은 본 연구와 관련한 추후 연구주제로 남긴다.

본 연구결과는 실증연구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벤처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경영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 [1] 강상미, “창업자·환경·전략·조직특성이 벤처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2.
- [2] 고봉상, 이상천, 용세중, “벤처기업의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벤처 경영연구”, 제6권, 제2호, 2003, pp. 3-33.
- [3] 김기영, 전명식, 다변량 통계자료분석, 자유아카데미, 2000, pp. 213-232.
- [4] 김인호, 디지털시대의 기업경영원리, 진영사, 서울, 2001, pp. 69-79, pp. 227-236.
- [5] 안연식, 김현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2호, 2002, pp. 431-462.
- [6] 오현목, 이상우, 박명철,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

- 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4호, 2002, pp. 881-906.
- [7] 용세중, “창업이론 개발을 위한 통합 개념모델”, Working Paper, 아주대학교, 2003.
- [8] 윤석철,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시장지향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2003.
- [9] 이동주, “벤처기업의 시장, 기술혁신지향성과 선행변수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2001.
- [10] 이인찬, 이광훈, 박성진, 김휘경,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과 주요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11] 이정수, “한국 벤처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98.
- [12] 장수덕, 이장우,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특성과 성과 변화”, 한국경영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 pp. 35-60.
- [13] 정충영,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서울, 1998, pp. 180-196, pp. 390-395.
- [14] 채명수, 강대석, 이형택, “경쟁전략 변수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5호, 2002, pp. 1289-1309.
- [15]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서울, 2000, pp. 241-269.
- [16] Baum, J. R., Locke, E. A., and Smith, K. 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4, No. 2, 2001, pp. 292-303.
- [17] Chrisman, J. J., Bauerschmidt, A., and Hofer, C. W.,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fall, 1998 pp. 5-29.
- [18] Cooper, A. C., “Challenges in Prediction new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8, No. 3, 1993, pp. 241-253.
- [19] Covin, J. G. and Slevin D. P.,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fall, 1991, pp. 7-25.
- [20] Gartner, W. B.,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1985, pp. 696-706.
- [21] Shane, S., and Venkataraman, S.,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5, No. 1, 2000, pp. 217-226.

## 저 자 소개



이상천  
1989년  
1991년  
1995년  
1998년  
관심분야

(E-mail : sclee@gnu.ac.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부교수  
System Reliability, Stochastic Modeling,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배성문  
1993년  
1995년  
2001년  
2003년  
관심분야

(E-mail : bsm@gnu.ac.kr)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조교수  
시스템 통합, RFID 응용 프로그램, Business Process  
Management



고봉상  
1975년  
1977년  
1989년  
2003년  
2004년  
관심분야

(E-mail : bsko@i-group.co.kr)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미국 워싱턴D.C. George Washington Univ. MBA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벤처경영, 경영전략, 마케팅전략